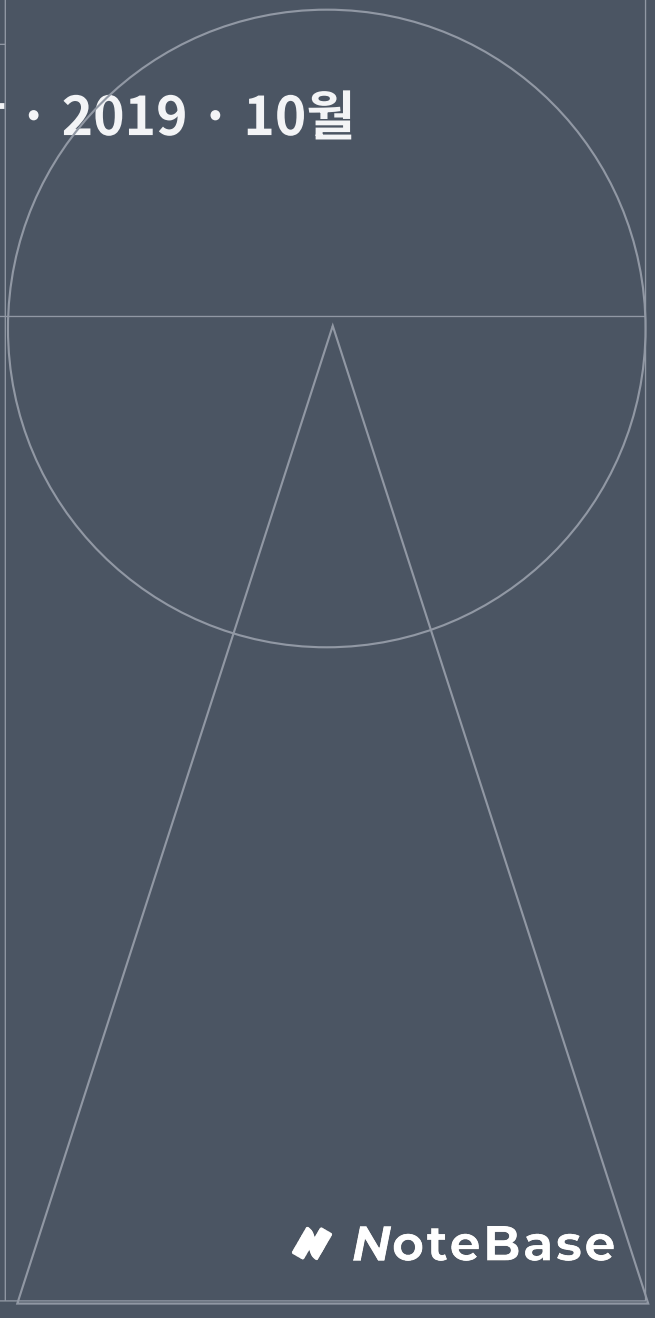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문 1. 정성적 예측방법 중 하나인 델파이법(Delphi method)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다수의 전문가들로 전문가그룹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설문지를 배부하여 예측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다.

② 사내 다양한 부서로부터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일치를 도출하는 방법이다.

③ 실제 조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이다.

④ 판매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의 수요를 예측하게 한 다음, 모든 판매원들이 예측한 자료를 종합하여 전체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성적 수요예측기법인 델파이법과 위원회 합의법, 시장조사법, 판매원 의견 종합법의 차이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델파이법은 다수 전문가에게 익명으로 반복 설문을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예측기법이다.
위원회 합의법은 여러 관리자가 직접 토론하여 합의된 예측치를 만드는 방법이다.
시장조사법은 설문이나 인터뷰로 소비자나 조사대상 자료를 모아 수요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판매원 의견 종합법은 영업사원들이 각자 담당 지역의 수요를 예측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법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다수의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수차례 설문을 반복하여 예측안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설명이므로 델파이법에 해당한다. 델파이법의 핵심은 전문가 활용, 익명성, 반복 피드백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자유토론을 통해 의견일치를 도출"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델파이법이 아니라 위원회 합의법 또는 집단토의식 예측에 가깝다. 델파이법은 대면 자유토론보다 반복 설문과 피드백으로 의견을 수렴한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설을 세우고 설문지, 인터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해서 가설을 검증"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일반적인 시장조사나 조사연구의 설명에 가깝고 델파이법의 핵심 절차가 아니다. 델파이법은 가설 검정보다 전문가 판단의 수렴에 초점이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판매원들로 하여금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지역 내의 수요를 예측"하게 한다는 표현이다. 이는 판매원 의견 종합법의 설명이다. 델파이법은 현장 판매원이 아니라 관련 분야 전문가집단의 예측을 반복 설문으로 종합한다.

오답 포인트

네 선택지 모두 정성적 예측과 관련된 설명처럼 보여 혼동되기 쉽다. 특히 ②의 집단 합의, ④의 판매원 예측도 모두 비계량적 접근이므로, 누가 예측하는지와 의견을 모으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않으면 델파이법과 다른 기법을 섞어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정성적 예측문제가 나오면 먼저 예측 주체와 절차를 본다. 전문가에게 익명 반복 설문을 하면 델파이법이고, 관리자가 직접 토론하면 위원회 합의법이며, 판매원이 지역 수요를 추정해 합산하면 판매원 의견 종합법이고, 소비자나 조사대상 자료를 설문·인터뷰로 모으면 시장조사법이다.

암기 포인트

델파이법은 전문가·익명·반복 설문이고, 판매원 의견 종합법은 영업현장·지역예측·합산이다.

NoteBase

문 2. 투자안 평가에 사용되는 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감가상각비는 인위적으로 배분된 회계적 비용으로서 기업이 실제로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할인율에 적절하게 반영되어 차감되므로 현금유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③ 기업의 순운전자본은 현금흐름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자본적 지출은 현금지출을 수반하므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투자안 평가에서 증분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포함해야 할 항목과 제외해야 할 항목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증분현금흐름은 투자안을 채택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실제 현금의 유입과 유출이다. 감가상각비는 회계상 비용일 뿐 그 자체는 현금유출이 아니고, 이자비용·배당금은 자본비용에 해당하므로 현금흐름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순운전자본 증감과 자본적 지출은 실제 현금의 묶임이나 지출을 뜻하므로 현금흐름에 반영된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감가상각비는 회계적으로 비용 처리되지만 실제 현금이 나가는 항목이 아니므로 현금유출에 직접 포함시키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현금유출에 포함시켜야 한다'이다. 올바르게는 '감가상각비 자체는 현금유출이 아니지만, 과세소득을 줄여 절세효과를 통해 세후현금흐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준다'이다.
2번: O. 이자비용과 배당금은 자금조달에 대한 대가이므로 투자안의 영업현금흐름에서 별도로 차감하지 않는다. 할인율에 자본비용이 반영되므로 다시 현금유출로 넣으면 이중차감이 된다.
3번: O. 순운전자본이 증가하면 그만큼 현금이 추가로 묶이고, 감소하면 현금이 회수된다. 따라서 투자안의 현금흐름 추정에서는 순운전자본의 증감을 반드시 반영한다.
4번: O. 자본적 지출은 설비나 자산 취득을 위한 실제 현금지출이므로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의 투자현금유출로 반영한다.

오답 포인트

감가상각비가 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현금유출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이 문제는 회계상 비용과 실제 현금지출을 구분하지 못하면 1번을 맞는 말처럼 보이게 만든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투자안 현금흐름 문제에서는 먼저 '실제로 현금이 나가거나 들어오는가'를 확인한다. 그다음 자금조달항목인지, 영업·투자항목인지 구분하면 이자비용·배당금은 제외되고 순운전자본 증감과 자본적 지출은 포함된다는 판단이 선다.

암기 포인트

감가상각은 비현금비용, 이자·배당은 자본비용, 순운전자본·자본적 지출은 실제 현금흐름이다.

NoteBase

문 3. 행위기준고과법(BARS; Behaviorally Anchored Rating Scales)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성적인 특질을 중시하는 전통적인 인사고과방법의 비판에 기초하여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② 평가범주마다 제시된 대표적인 행동패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등급을 매기는 방식이다.

③ 평가방법의 개발에 시간 및 비용이 많이 들며 평가의 타당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④ 척도를 실제 사용하는 평가자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BARS가 전통적 특성중심 고과법과 어떻게 구별되는지, 그리고 개발 과정의 특징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BARS는 직무수행에서 관찰 가능한 구체적 행동사례를 등급의 기준점으로 삼는 행동기준고과법이다. 결정 차이축은 추상적 인성 특질을 보느냐, 실제 행동을 보느냐이다.
전통적 특성평정법은 성실성·책임감 같은 개인 특질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BARS의 핵심 키워드는 행동사례, 등급별 행동앵커, 직무기초 개발, 평가자 참여이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전통적인 인사고과가 인성적 특질 중심이라는 비판을 보완하려고 나온 방법이 BARS이다. BARS는 피평가자의 실제 행동을 관찰 가능한 행동사례로 연결해 평가한다는 점에서 맞는 설명이다.

② O
BARS는 평가범주별로 대표적인 행동패턴을 등급의 앵커로 제시하고, 평가자는 그중 가장 가까운 행동기술을 골라 평정한다. 등급마다 행동기준이 붙는다는 점이 핵심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③ O
BARS는 직무분석, 중요사건 수집, 행동사례 분류, 척도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개발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행동앵커를 적절히 만들지 못하면 척도의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으므로 문항 취지상 옳은 설명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척도를 실제 사용하는 평가자가 개발과정에 참여하지 않는다'이다. 실제로는 BARS를 현장에서 사용할 평가자나 직무에 정통한 구성원이 중요사건 수집과 행동사례 분류 과정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올바르게는 '척도를 실제 사용하는 평가자도 개발과정에 참여하여 행동기준을 구체화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BARS를 단순히 '행동을 관찰하는 평가법' 정도로만 외우면 ④를 놓치기 쉽다. 출제자는 BARS의 개발 절차까지 아는지를 묻고 있으며, 특히 실제 사용자의 참여 여부를 뒤집어 함정을 만들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BARS 선지는 먼저 '특성 중심이 아니라 행동 중심인가'를 본다. 그다음 '등급마다 행동앵커가 붙는가', '직무분석과 중요사건 수집을 거치는가', '실제 평가자나 직무전문가가 개발에 참여하는가'를 확인하면 틀린 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BARS는 사람의 성격을 재는 척도가 아니라 행동사례를 등급에 묶어 두는 척도이며, 개발에도 현장 참여가 붙는 방식이다.

NoteBase

문 4. 재고관리 Q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기적으로 재고를 보충하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다.

② 품목별로 조사 빈도를 달리할 수 있다.

③ 고정 로트크기는 수량할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④ 안전재고 수준이 낮아져서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속검토 방식의 Q시스템과 정기검토 방식의 P시스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Q시스템은 재고수준을 계속 확인하다가 재주문점에 도달하면 미리 정해 둔 일정 수량을 발주하는 방식이다.
P시스템은 일정한 주기마다 재고를 확인하고 그때 필요한 만큼 주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Q시스템의 핵심은 고정 주문량과 연속검토이고, P시스템의 핵심은 고정 주문주기와 정기보충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주기적으로" 재고를 보충한다는 표현이 틀렸다. 주기적으로 재고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것은 P시스템의 특징이고, Q시스템은 재고를 계속 감시하다가 재주문점에 도달할 때마다 주문하므로 관리가 더 단순하다고 보기 어렵다.
② O: Q시스템은 품목별 중요도와 특성에 따라 감시 수준과 점검 강도를 달리하기에 적합하다. 정기검토 주기를 일률적으로 맞출 필요가 없는 점이 장점이다.
③ O: Q시스템의 고정 로트크기는 한 번 주문할 때마다 발주하는 일정 수량을 뜻한다. 이 수량은 보통 경제적 주문량을 기준으로 정하며, 수량할인 조건을 반영해 조정할 수도 있다.
④ O: Q시스템은 연속검토로 재고부족 위험을 세밀하게 관리할 수 있어 P시스템보다 안전재고를 더 낮게 잡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재고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Q를 주문주기라고, P를 주문량이라고 거꾸로 외우면 ①에 쉽게 끌린다. 이 문항의 함정은 "주기적으로 보충"이라는 표현이 P시스템의 특징인데 이를 Q시스템에 붙여 놓은 점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고정된 것이 주문수량인지 주문주기인지부터 확인하면 된다. 재주문점 도달 시 일정 수량 발주이면 Q시스템이고, 일정한 시점마다 필요한 양을 계산해 보충하면 P시스템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Q는 Quantity라서 수량이 고정되고, P는 Period라서 주기가 고정된다.

NoteBase

문 5. 해크만(Hackman)과 올드햄(Oldham)이 제시한 직무특성모형에 포함되지 않는 직무특성은?

① 피드백

② 자율성

③ 과업정체성

④ 과업적합성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해크만과 올드햄의 직무특성모형에서 핵심 직무특성 5가지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특성모형의 핵심 직무특성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5가지이다.
과업정체성은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완결된 단위로 수행하는 정도이고, 과업적합성은 이 모형의 공식 구성요소가 아니라 다른 인사관리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일반 표현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피드백은 자신의 수행 결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얻는 정도이므로 직무특성모형에 포함되는 핵심 직무특성이다.
틀린 부분은 ①을 포함되지 않는 특성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피드백은 모형에 포함된다.

② X
자율성은 업무 수행 방법과 일정에 대해 재량을 가지는 정도이므로 핵심 직무특성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②를 포함되지 않는 특성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자율성은 모형에 포함된다.

③ X
과업정체성은 자신이 맡은 일이 하나의 완결된 결과물을 이루는 정도를 뜻하므로 핵심 직무특성에 해당한다.
틀린 부분은 ③을 포함되지 않는 특성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과업정체성은 모형에 포함된다.

④ O
과업적합성은 해크만과 올드햄이 제시한 5가지 핵심 직무특성에 들어가지 않는다.
비슷한 표현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모형의 정확한 용어는 과업적합성이 아니라 과업정체성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출제자는 과업정체성과 과업적합성을 비슷하게 들리도록 배치해 용어 암기만 불완전한 수험생을 흔든다. 특히 과업으로 시작하는 단어라는 이유만으로 ③과 ④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해크만과 올드햄 문항은 먼저 핵심 직무특성 5가지를 떠올린 뒤 보기 용어가 그 목록에 정확히 있는지 대조하면 된다. 비슷한 말이 보이면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처럼 교과서의 정확한 명칭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직무특성모형은 기술다양성, 과업정체성, 과업중요성, 자율성, 피드백의 5가지이며 과업적합성은 포함되지 않는다.

NoteBase

문 6.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을 통하여 계산하고자 한다. 어떤 주식의 수익률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공분산이 0.4이고,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이 0.2라고 한다. 이때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이 4%, 무위험 수익률이 2%라고 하면, 이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① 2%

② 4%

③ 6%

④ 8%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CAPM에서 $\beta = \frac{\mathrm{Cov}(R_i, R_m)}{\mathrm{Var}(R_m)}$를 먼저 구한 뒤 $E(R_i) = R_f + \beta(E(R_m) - R_f)$를 적용하는 문제이다.

조건 정리

주어진 값:
- 주식과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공분산은 0.4이다.
- 시장포트폴리오 수익률의 분산은 0.2이다.
-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은 4%이다.
- 무위험수익률은 2%이다.

구해야 할 값:
- 주식의 기대수익률이다.

주의할 조건:
- 공분산과 시장분산으로 β를 먼저 계산해야 한다.

사용할 공식

사용 공식은 $\beta = \frac{\mathrm{Cov}(R_i, R_m)}{\mathrm{Var}(R_m)}$, $\quad E(R_i) = R_f + \beta(E(R_m) - R_f)$이다.
이 공식을 쓰는 이유는 CAPM이 개별 주식의 기대수익률을 무위험수익률, 시장위험프리미엄, 그리고 그 주식의 체계적 위험인 β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계산 과정

1. β를 계산하면 $\beta = \frac{0.4}{0.2} = 2$이다.
2. 시장위험프리미엄은 $E(R_m) - R_f = 4\% - 2\% = 2\%$이다.
3. 주식의 기대수익률은 $E(R_i) = 2\% + 2 \times 2\% = 6\%$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2%는 무위험수익률만 적어 놓은 값이므로 CAPM의 시장위험프리미엄이 반영되지 않았다.
- 틀린 값은 2%이고, 올바르게는 $\beta = 2$를 반영한 6%이다.

② X
- 4%는 시장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일 뿐 개별 주식의 기대수익률이 아니다.
- 틀린 값은 4%이고, 올바르게는 시장수익률에 β를 기계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CAPM 계산 결과인 6%이다.

③ O
- 공분산 0.4와 시장분산 0.2로 계산한 β는 2이다.
- 따라서 기대수익률은 $2\% + 2 \times (4\% - 2\%) = 6\%$이므로 ③이 맞다.

④ X
- 8%는 시장위험프리미엄 2%를 두 번 더하는 대신 4% 전체를 $\beta = 2$와 곱하는 식으로 잘못 계산할 때 나오는 값이다.
- 틀린 값은 8%이고, 올바르게는 무위험수익률 2%에 β와 시장위험프리미엄을 곱한 4%를 더한 6%이다.

오답 포인트

이 문제의 함정은 시장포트폴리오 기대수익률 4%와 시장위험프리미엄 2%를 구분하지 못하는 데 있다. CAPM은 $E(R_m)$ 전체에 β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E(R_m) - R_f$에만 β를 곱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CAPM 계산형 문제는 먼저 공분산과 시장분산으로 β를 구하고, 다음에 시장위험프리미엄 $(E(R_m) - R_f)$을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R_f+β×시장위험프리미엄 순서로 대입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CAPM은 무위험수익률 + $\beta \times$ 시장위험프리미엄이다.

NoteBase

문 7. 회계오류의 수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처리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포괄손익계산서의 수익과 비용계정 과목을 잘못 분류하여 발생하는 오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③ 재고자산오류, 선수수익 관련 오류는 자동조정오류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④ 오류의 효과가 다음 연도에 자동적으로 상계되지 않는 비자동조정오류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회계오류를 당기순이익 영향 여부와 자동조정오류·비자동조정오류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재무상태표 계정의 단순 분류오류나 포괄손익계산서 안에서의 과목 분류오류는 보통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동조정오류는 다음 기간에 오류효과가 스스로 뒤집히는 오류로, 재고자산오류나 선수수익 관련 오류가 대표적이다.
비자동조정오류는 다음 기간에 자동 상계되지 않아 별도 수정분개가 필요한 오류로, 손익 계정 처리까지 잘못된 경우에는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O
매출채권을 미수금으로 잘못 분류한 것은 자산 계정 내부의 분류오류이다. 자산 총액과 수익·비용은 변하지 않으므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X
틀린 표현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안에서 수익과 비용계정의 과목을 잘못 분류한 오류는 표시나 분류의 문제일 뿐, 수익과 비용의 총액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이다.

③ O
재고자산오류와 선수수익 관련 오류는 대표적인 자동조정오류이다. 이런 오류는 발생 연도와 다음 연도에 걸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주지만, 다음 연도에 오류효과가 자동으로 상계되는 성격이 있다.

④ O
비자동조정오류는 다음 연도에 오류효과가 저절로 상계되지 않는 오류이다. 감가상각 누락이나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오분류처럼 손익 계정 처리까지 잘못된 유형은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며, 다음 연도에도 자동으로 바로잡히지 않아 별도 수정이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포괄손익계산서에 들어갔으니 순이익이 달라진다"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틀리기 쉽다. 이 문항은 어디에 분류되었는지가 아니라 수익·비용의 총액 자체가 바뀌었는지를 보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오류 문제는 먼저 당기순이익 영향 여부를 본다. 자산·부채 내부의 단순 분류오류인지, 손익 총액을 바꾸는 오류인지, 다음 연도에 자동 상계되는 자동조정오류인지를 차례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분류만 틀리면 순이익 불변, 금액 인식이 틀리면 순이익 변동, 자동조정오류는 다음 연도에 스스로 뒤집힌다.

NoteBase

문 8. 우선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우선주는 사채에 비해 일반적으로 자본비용이 높다.

②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만기가 있는 자본이다.

③ 기업은 우선주에 대해 당기에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산상태가 된다.

④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주어진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우선주를 사채 및 보통주와 비교하여 자본비용, 만기, 배당 의무, 의결권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우선주는 배당과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권을 갖지만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법적 상환의무가 없는 자기자본이다.
사채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의무가 있는 타인자본이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절감효과까지 고려하면 우선주보다 자본비용이 낮은 편이다.
보통주는 잔여이익 청구권과 의결권을 가지는 기본적인 자기자본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우선주는 자기자본이므로 배당이 세법상 비용 처리되지 않고, 투자자 요구수익률도 사채보다 높은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사채보다 자본비용이 높다.
2번 X: 틀린 부분은 "만기가 있는 자본"이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만기가 없는 자기자본이다. 일부 상환우선주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 성격은 아니다.
3번 X: 틀린 부분은 "배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파산상태가 된다"이다. 우선주 배당은 사채이자처럼 법적 강제지급 의무가 아니므로 당기 배당을 하지 않아도 곧바로 채무불이행이나 파산이 되지 않는다. 다만 누적적 우선주라면 미지급배당이 누적될 수 있다.
4번 X: 틀린 부분은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주어진다"이다.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의결권이 없고, 예외적으로 배당 미지급 등 특정 상황에서만 의결권이 부여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우선주를 보통주와 사채의 중간 형태로 외우면 2번과 4번에서 흔들리기 쉽다. 중간적 성격이 있다고 해도 일반적 성질은 만기 없는 자기자본, 비의결권, 배당 미지급 시 즉시 파산 아님으로 정리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우선주 선지를 보면 먼저 사채와 비교해서 법적 지급·상환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보통주와 비교해서 의결권과 만기 유무를 확인하면 된다. 지급 의무가 없고 만기가 없으며 의결권이 제한되면 우선주의 일반적 특징에 가깝다.

암기 포인트

우선주는 배당 우선, 의결권 제한, 만기 없음, 배당 미지급 즉시 파산 아님으로 기억한다.

NoteBase

문 9. <보기>의 경영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테일러(Taylor)의 과학적 관리이론에서 과업관리 목표는 '높은 임금과 높은 노무비의 원리'이다.
ㄴ. 포드 시스템(Ford system)은 생산의 표준화를 전제로 한다.
ㄷ. 페욜(Fayol)의 관리이론 중 생산, 제작, 가공활동은 관리활동에 해당한다.
ㄹ. 메이요(Mayo)의 호손연구(Hawthorne Studies)에 의하면 화폐적 자극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테일러, 포드, 페욜, 메이요의 대표 개념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이론 매칭형 문항이다.

핵심 정리

테일러: 과학적 관리법 — 표준화와 과업관리를 통해 고임금과 저노무비를 추구하는 이론이다.
포드: 포드시스템 — 표준화된 제품을 이동조립법으로 대량생산하는 체계이다.
페욜: 관리과정론 — 기술, 상업, 재무, 보전, 회계, 관리의 6가지 활동으로 기업활동을 구분하였다.
메이요: 호손연구 — 생산성은 화폐적 자극만이 아니라 비공식조직, 소속감, 인간관계 같은 사회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본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ㄴ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ㄱ의 잘못된 표현은 '높은 임금과 높은 노무비'이다. 테일러의 과업관리 목표는 높은 임금과 낮은 노무비, 즉 고임금·저노무비이다.
- ㄴ은 옳다. 포드시스템은 표준화된 제품을 전제로 이동조립법을 적용하는 대량생산 방식이기 때문이다.

② X
- ②는 ㄱ, ㄹ의 조합인데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ㄱ의 잘못된 표현은 다시 '높은 노무비'이다. 올바르게는 '고임금과 저노무비'이다.
- ㄹ은 옳다. 호손연구는 생산성을 화폐적 자극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인간관계와 사회심리적 요인을 중시하므로, 시험 문맥에서는 화폐적 자극이 생산성을 좌우하는 핵심요인이 아니라는 진술을 맞는 설명으로 본다.

③ X
- ③은 ㄴ, ㄷ의 조합인데 ㄷ이 틀려서 오답이다.
- ㄴ은 옳다. 포드시스템의 핵심은 생산의 표준화와 대량생산이다.
- ㄷ의 잘못된 표현은 '관리활동에 해당한다'이다. 페욜에게 생산, 제작, 가공은 관리활동이 아니라 기술활동에 해당한다.

④ O
- ④는 ㄴ, ㄹ의 조합이며 둘 다 옳으므로 정답이다.
- ㄴ은 포드시스템의 본질을 정확히 설명한 문장이다.
- ㄹ은 메이요의 인간관계론 관점에서 생산성의 핵심 설명변수를 사회심리적 요인으로 본다는 점을 반영한 설명이다.

오답 포인트

테일러의 '고임금·저노무비'를 '고임금·고노무비'로 바꾸어 놓거나, 페욜의 6대 활동 중 기술활동과 관리활동을 뒤섞으면 쉽게 흔들린다. 메이요도 화폐적 자극을 완전히 부정했다기보다 사회심리적 요인을 더 중시했다는 점에서 표현의 시험식 단순화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이 유형은 학자 이름마다 대표 연결어를 먼저 붙여서 판단한다. 테일러는 고임금·저노무비, 포드는 표준화·이동조립법, 페욜은 6대 활동 구분, 메이요는 사회심리적 요인 강조로 연결하면 조합선지를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테일러=고임금·저노무비, 포드=표준화 대량생산, 페욜=생산은 기술활동, 메이요=인간관계 중시이다.

NoteBase

문 10. 전문가시스템(expert system)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인간의 지식을 규칙의 집합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②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지식베이스를 검색하기 위해 사용되는 추론엔진을 포함한다.

④ 오작동 기계의 진단이나 신용대출 여부 결정 같은 업무에 적용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전문가시스템의 핵심 구성요소와 인공신경망의 층 구조를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문가시스템: 특정 분야 전문가의 지식을 규칙 형태로 저장하고 추론엔진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지식기반 시스템이다. 결정 차이축: 규칙 기반 추론 여부. 키워드: 지식베이스, 규칙, 추론엔진.
인공신경망: 데이터를 학습해 입력과 출력의 관계를 찾아가는 학습모형이다. 결정 차이축: 층 구조와 학습 여부. 키워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선지별 해설

① O: 전문가시스템은 인간 전문가의 판단지식을 규칙의 집합으로 표현해 지식베이스에 저장하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이다. 이는 인공신경망의 전형적 구조이다. 전문가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지식베이스, 추론엔진, 사용자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된다.
③ O: 추론엔진은 지식베이스에 저장된 규칙을 적용해 결론을 찾는 모듈이므로 옳다.
④ O: 전문가시스템은 고장진단, 신용심사처럼 전문가의 판단규칙을 체계화할 수 있는 업무에 활용될 수 있으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②는 AI 관련 시스템이라는 공통점만 보고 전문가시스템과 인공신경망을 같은 구조로 착각하면 틀리기 쉽다. 전문가시스템은 규칙과 추론엔진이 핵심이고, 층 구조는 신경망의 특징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지식베이스, 규칙, 추론엔진이 나오면 전문가시스템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입력층, 은닉층, 출력층, 학습이 나오면 인공신경망의 특징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전문가시스템은 규칙+추론엔진, 인공신경망은 입력층+은닉층+출력층 구조이다.

NoteBase

문 11.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①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적시성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② 재무정보는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③ 정보이용자가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④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간 간 비교가능성이 있는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재무정보의 근본적 질적 특성과 보강적 질적 특성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근본적 질적 특성은 재무정보가 의사결정에 본질적으로 유용해지기 위해 필요한 성질로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이다.
충실한 표현은 완전성, 중립성, 오류 없음으로 구성되며, 완전성은 경제적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빠짐없이 담는 것이다.
보강적 질적 특성은 비교가능성, 검증가능성, 적시성, 이해가능성으로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완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적시성 있는'이 틀린 표현이다. 적시성은 정보를 제때 제공하는 성질로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올바르게는 '목적적합하거나 충실하게 표현된 재무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② X.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이 틀린 표현이다. 이해가능성은 정보이용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쉽게 만드는 성질로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올바르게는 '경제적 현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거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라고 본다.
③ O. '현상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재무정보'는 완전성을 뜻한다. 완전성은 충실한 표현의 구성요소이므로 근본적 질적 특성에 해당한다.
④ X. '기업 간 비교가능성과 기간 간 비교가능성'이 틀린 표현이다. 비교가능성은 기업 간·기간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올바르게는 '비교가능성은 근본적 질적 특성을 보완하는 성질이다'라고 정리한다.

오답 포인트

①의 적시성, ②의 이해가능성, ④의 비교가능성은 모두 실제 시험에서 자주 보이는 질적 특성이지만 모두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③은 완전성이라는 하위요소를 직접 묻고 있어, '완전성은 충실한 표현에 속한다'는 연결고리를 놓치면 틀리기 쉽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의 핵심어를 먼저 뽑아 근본적 질적 특성인지 보강적 질적 특성인지 분류하면 된다. 목적적합성과 충실한 표현 쪽이면 근본적 질적 특성이고,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 쪽이면 보강적 질적 특성이다.

암기 포인트

근본적은 목적적합성·충실한 표현, 보강적은 비교가능성·검증가능성·적시성·이해가능성이다.

NoteBase

문 12. 유통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로갈등 중 제조업자와 도매상 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수직적 갈등이다.

② 집약적 유통(intensive distribution)은 중간상의 판매가격, 신용정책, 서비스 등에 관해 보다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프랜차이즈 시스템은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vertical marketing system)의 한 유형이다.

④ 유통경로가 길어질수록 각 중간상들이 수행하는 마케팅 기능은 보다 전문화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유통경로관리에서 집약적 유통의 의미와 경로갈등,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약적 유통은 가능한 한 많은 중간상을 통해 광범위하게 판매하는 방식이므로 유통범위는 넓지만 개별 중간상에 대한 제조업자의 통제력은 약해진다.
선택적 유통이나 전속적 유통은 취급 중간상을 제한하므로 가격, 서비스, 신용정책에 대한 통제가 상대적으로 강해진다.
수직적 갈등은 서로 다른 경로수준 구성원 사이의 갈등이고, 프랜차이즈는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에 속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제조업자와 도매상은 유통경로에서 서로 다른 수준의 구성원이므로 이들 사이의 갈등은 수직적 갈등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집약적 유통은 중간상에 대해 보다 강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표현이다. 집약적 유통은 가능한 많은 판매점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서 판매가격, 신용정책, 서비스에 대한 개별 통제가 오히려 약해진다.
올바르게는 "보다 강한 통제가 가능한 방식은 선택적 유통이나 전속적 유통이다"가 된다.
③ O 프랜차이즈는 계약을 통해 경로구성원을 결합하는 방식이므로 계약형 수직적 마케팅 시스템의 대표적 형태이다.
④ O 유통경로가 길어지면 각 중간상이 담당 기능을 분담하게 되므로 마케팅 기능은 보다 세분화되고 전문화되는 경향이 있다.

오답 포인트

"집약적"이라는 말 때문에 통제도 강하다고 연결하면 오답이 된다. 여기서 집약적은 통제강도가 아니라 유통커버리지의 넓음을 뜻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유통전략 선지는 먼저 취급점 수가 많은지 적은지를 본다. 취급점 수가 많아질수록 시장커버리지는 넓어지지만 제조업자의 개별 통제력은 약해지고, 취급점을 제한할수록 통제력은 강해진다.

암기 포인트

집약적 유통은 넓게 깔고 통제는 약하게, 선택적·전속적 유통은 좁게 두고 통제는 강하게 이해하면 된다.

NoteBase

문 13. 직무급(job-based payment)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급의 임금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 직무평가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② 직원의 연령, 근속 연수, 학력 등 속인적 요소가 강조된다.

③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체계이다.

④ 조직 내 직무들 간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직무급이 사람의 속성이 아니라 직무 자체의 내용과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체계라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직무급: 직무의 내용, 책임, 난이도, 상대적 가치에 따라 임금을 정하는 체계이다. 결정 차이축은 사람보다 직무 자체이다. 키워드는 직무평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다.
연공급: 연령, 근속 연수, 학력 등 속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임금을 정하는 체계이다. 직무급과 가장 자주 혼동되는 비교 대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직무급은 각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먼저 평가해야 임금등급을 설계할 수 있으므로 직무평가가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② X
틀린 부분은 "연령, 근속 연수, 학력 등 속인적 요소가 강조된다"이다.
실제로는 직무급은 속인적 요소보다 직무의 내용, 책임, 난이도, 상대적 가치가 강조된다. 연령·근속·학력 등을 중시하는 것은 연공급의 성격이다.

③ O
직무급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한다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연결된다.
사람의 연공보다 직무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뜻이다.

④ O
직무급에서는 조직 내 여러 직무의 상대적 가치를 기준으로 임금이 결정된다. 직무평가 결과가 임금결정의 직접 기준이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직무급과 연공급의 기준을 뒤바꾸는 함정이다. 직무급 문제에서 연령, 근속, 학력 같은 속인적 요소가 나오면 연공급 특징이 섞였는지 먼저 의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금결정의 기준이 사람인지 직무인지부터 구분하면 된다. 연령·근속·학력처럼 사람의 속성이 기준이면 연공급이고, 책임·난이도·직무가치처럼 직무 자체가 기준이면 직무급이다.

암기 포인트

직무급은 사람값이 아니라 직무값으로 임금을 정하는 체계이다.

NoteBase

문 14. EOQ(Economic Order Quantity) 모형의 가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단위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수요율은 일정하며 확정적이다.

② 제품의 주문은 로트(lot) 단위로 이루어지며, 로트 크기에 제약이 없다.

③ 주문리드타임(lead time)은 일정하고 주문한 양은 정확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

④ 동일한 공급업체에 대해 여러 개의 품목을 주문하는 경우 이를 결합해서 주문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본 EOQ 모형의 전제, 특히 확정수요·확정리드타임·단일품목 독립주문 가정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기본 EOQ는 한 품목의 재고를 대상으로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며, 주문은 로트 단위로 하고, 리드타임과 보충이 확실하다고 가정하여 주문비용과 보유비용의 균형점에서 최적 주문량을 구하는 모형이다.

1번

O이다. 기본 EOQ는 단위기간 수요가 일정하고 확정적이라고 본다. 수요가 변동적이거나 확률적이면 기본 EOQ가 아니라 확률재고모형이나 변형 EOQ로 다루게 된다.

2번

O이다. 기본 EOQ는 주문이 로트 단위로 이루어지고 주문량 자체에 별도의 상한 제약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한 번의 주문 크기를 연속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가정과 부합한다.

3번

O이다. 기본 EOQ는 주문리드타임이 일정하고 주문한 물량이 예정대로 정확히 입고된다고 가정한다. 입고지연이나 부분입고가 핵심 변수로 들어가면 기본 EOQ의 단순 전제를 벗어난다.

4번

X이다. 틀린 부분은 '여러 개의 품목을 주문하는 경우 이를 결합해서 주문한다'는 표현이다. 기본 EOQ는 각 품목을 독립적으로 주문하는 단일품목 모형이다. 올바르게는 '각 품목을 독립적으로 주문한다고 가정한다'라고 고쳐야 한다. 여러 품목의 결합주문은 기본 EOQ가 아니라 공동보충 또는 joint replenishment 쪽의 가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2번의 로트 주문과 4번의 결합주문이 모두 주문 방식에 관한 말이라 비슷하게 보이는 점이 함정이다. EOQ는 로트 단위 주문은 전제로 하지만, 여러 품목을 묶어 함께 주문하는 것까지 기본 가정으로 두지는 않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EOQ 선지는 수요, 리드타임, 품목 독립성, 할인·부족 허용 여부의 네 축으로 판단한다. 수요와 리드타임이 확정적이고 한 품목을 독립적으로 다루면 기본 EOQ이고, 복수 품목 결합주문이나 확률수요가 나오면 기본 EOQ의 가정이 아니다.

암기 포인트

기본 EOQ는 확정수요, 확정리드타임, 단일품목 독립주문 모형이다.

NoteBase

문 15. 기술혁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기술혁신은 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새로운 변화를 도입하여 실용화시켰을 때 나타난다.

② 기술혁신은 크게 공정혁신과 제품혁신으로 구분된다.

③ 공정혁신이란 조직이 그 구조, 절차, 관리방식 또는 정보통제시스템 등 경영관리체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여 조직의 효율을 제고하는 혁신이다.

④ 제품혁신이란 새로운 시장 및 고객을 창출하거나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을 뜻한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술혁신의 유형 중 제품혁신, 공정혁신, 관리혁신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아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제품혁신은 시장에 제공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새로 개발하거나 개선하는 혁신이다. / 결정 차이축: 결과물 자체가 바뀌는가 / 키워드: 신제품, 신서비스, 개선
공정혁신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생산방식, 작업절차, 설비, 전달방식을 바꾸는 혁신이다. / 결정 차이축: 만드는 방식이 바뀌는가 / 키워드: 생산과정, 효율, 절차
관리혁신은 조직구조, 관리방식, 정보통제시스템 등 경영관리체제를 바꾸는 혁신이다. / 결정 차이축: 운영체계가 바뀌는가 / 키워드: 조직, 관리, 통제

선지별 해설

1번: O. 기술혁신은 단순한 발명 단계가 아니라 새로운 변화가 실제 제품이나 서비스에 도입되어 실용화될 때 성과로 나타난다. 선지는 기술혁신의 실용화 성격을 설명하므로 타당하다.
2번: O. 기술혁신의 대표적 구분은 제품혁신과 공정혁신이다. 무엇을 새로 만들거나 개선하는지가 중심이면 제품혁신이고, 어떻게 만들고 전달하는지가 중심이면 공정혁신이다.
3번: X. 틀린 부분은 "공정혁신이란 조직이 그 구조, 절차, 관리방식 또는 정보통제시스템 등 경영관리체제와 관계된 새로운 제도를 도입"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공정혁신이 아니라 관리혁신 또는 조직혁신의 설명에 가깝다. 공정혁신은 생산방법, 작업절차, 설비, 물류나 전달방식 등을 바꾸어 효율을 높이는 혁신이다.
4번: O. 제품혁신은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개발하거나 기존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시장성과 고객가치를 높이는 혁신이다. 선지는 제품혁신의 내용과 목적을 적절히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3번은 '절차'라는 단어 때문에 공정혁신처럼 보이지만, 뒤에 이어지는 핵심 표현은 조직구조, 관리방식, 정보통제시스템, 경영관리체제이다. 이는 생산공정이 아니라 관리체계를 바꾸는 혁신이라는 점에서 관리혁신으로 보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가 결과물 자체를 바꾸면 제품혁신, 만드는 방법을 바꾸면 공정혁신, 조직 운영체계와 관리방식을 바꾸면 관리혁신으로 구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제품혁신은 무엇을 팔 것인가, 공정혁신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관리혁신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의 차이이다.

NoteBase

문 16.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는 있으나, 그것을 구입할 경제적 능력이 없다면 마케팅은 발생할 수 없다.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미충족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②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없기 때문이다.

③ 관여한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④ 당사자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마케팅이 성립하는 교환 조건 중 각 당사자가 상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 가치와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마케팅은 교환을 통해 이루어진다. 교환이 성립하려면 둘 이상의 당사자가 존재하고,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의사소통과 전달이 가능하고, 거래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할 자유가 있으며, 거래를 원해야 한다. 이 문항에서 구매자의 경제적 능력 부족은 판매자에게 제공할 가치인 지불수단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둘 혹은 그 이상의 당사자가 미충족된 욕구를 지니는 것은 교환의 배경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마케팅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이 문항의 핵심은 구매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미충족된 욕구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번: X. 교환은 한쪽의 막연한 호의나 만족 의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각 당사자가 거래를 원하고 서로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는 상태이다. 틀린 표현은 '다른 당사자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욕망'이다. 올바르게는 '상대방과 거래하기를 원해야 하며 교환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이다.
3번: O. 구매자가 상품을 원해도 지불능력이 없으면 판매자에게 대가를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관여한 당사자 중 하나가 다른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교환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장 옳다.
4번: X. 의사소통 수단의 부재도 교환을 막을 수는 있지만, 제시된 상황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구매력 부족이 문제이다. 틀린 표현은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올바르게는 '구매자가 지불능력이 없어 판매자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욕구의 존재와 교환능력을 같은 것으로 보면 1번에 끌리기 쉽다. 이 문제는 소비자가 원한다는 사실보다 소비자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대가가 있는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마케팅 성립 조건 문제는 먼저 교환의 다섯 조건을 떠올린 뒤, 제시된 상황이 당사자 수의 문제인지, 가치 제공 능력의 문제인지, 의사소통의 문제인지로 나누어 판단한다. 구매력 부족이 보이면 가치 제공 능력 부족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욕구는 출발점이고, 교환능력은 성립조건이다. 돈이 없으면 욕구가 있어도 교환은 성립하지 않는다.

NoteBase

문 17. 모딜리아니(F. Modigliani)와 밀러(M. H. Miller)의 무관련이론(MM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인세가 없는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한다.

② 자기자본비용은 부채비율에 비례하므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은 부채비율에 대해 일정하게 된다.

③ 기업의 가치는 자본구조와 무관하다.

④ 법인세가 있는 경우를 상정한 수정 MM이론에서는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아진다고 주장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법인세가 없는 원래 MM이론과 법인세를 고려한 수정 MM이론의 핵심 명제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원래 MM이론은 법인세가 없고 완전자본시장을 가정할 때 자본구조가 기업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이론이다. 수정 MM이론은 법인세가 있으면 부채의 이자절세효과 때문에 부채가 늘수록 기업가치가 증가한다고 본다. 원래 MM이론에서는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기자본비용은 상승하지만 WACC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선지별 해설

① O
법인세가 없는 완전자본시장은 원래 MM이론의 기본 가정이다. 거래비용, 파산비용, 세금이 없고 정보가 완전하다는 전제에서 자본구조 무관련 명제가 성립한다.

② O
부채가 늘어나면 재무위험이 주주에게 이전되어 자기자본비용은 부채비율에 비례해 상승한다. 그러나 저렴한 부채 사용 효과와 자기자본비용 상승 효과가 상쇄되어 원래 MM이론에서는 WACC가 일정하다.

③ O
기업의 가치는 자산이 창출하는 영업현금흐름으로 결정되고, 부채와 자기자본의 구성비 자체와는 무관하다는 것이 원래 MM이론의 핵심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낮아진다'는 표현이다. 법인세를 고려한 수정 MM이론에서는 이자절세효과 때문에 부채가 증가할수록 기업가치는 증가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원래 MM이론의 '부채비율 상승 시 자기자본비용 상승'만 기억하고 수정 MM이론의 방향까지 반대로 연결하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4번에서 법인세가 있을 때의 효과를 '가치 하락'으로 뒤집어 놓은 데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MM이론 문제는 먼저 법인세 유무를 본다. 법인세가 없으면 자본구조와 기업가치는 무관하고 WACC는 일정하다. 법인세가 있으면 이자절세효과 때문에 부채 증가 방향은 기업가치 증가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무세금 MM은 가치 불변, 세금 있는 MM은 부채절세로 가치 증가이다.

NoteBase

문 18. 기업이 제품을 여러 국가에 동시에 판매할 때, 국제 가격의 표준화와 차별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본국중심가격결정
② 현지중심가격결정
③ 목표중심가격결정
④ 세계중심가격결정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국제가격결정의 표준화·차별화 접근에서 본국중심, 현지중심, 세계중심 가격결정을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본국중심가격결정은 본국에서 쓰는 가격기준을 해외시장에도 크게 수정하지 않고 적용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본사 기준, 높은 표준화이다.
현지중심가격결정은 국가별 시장여건과 경쟁상황에 맞추어 현지마다 다른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현지 적응, 높은 차별화이다.
세계중심가격결정은 전 세계 시장을 하나의 전략 단위로 보고 국가 간 일관성과 경쟁력을 함께 고려해 가격을 정하는 방식이다. 키워드는 글로벌 통합, 조정된 표준화이다.
목표중심가격결정은 국제가격의 표준화·차별화 전략을 설명하는 대표 분류가 아니다.

NoteBase

기출OX 해설집 · 공무원/서울시/7급 · 경영학 · 2019 · 10월

선지별 해설

① X
본국중심가격결정은 실제 국제가격결정 방법에 해당한다. 본국 가격을 중심으로 해외가격을 설정하는 방식이므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답 선택지로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답으로 고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실제 전략적 결정방법에 해당한다.

② X
현지중심가격결정은 국가별 수요, 경쟁, 유통여건에 맞춰 가격을 달리 정하는 방식이므로 실제 국제가격결정 방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정답으로 고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현지 적응형 가격결정에 해당한다.

③ O
목표중심가격결정은 본국중심, 현지중심, 세계중심처럼 국제가격의 표준화·차별화 의사결정을 설명하는 대표 분류가 아니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된다.

④ X
세계중심가격결정은 여러 국가를 통합적으로 보며 글로벌 차원의 가격 일관성을 추구하는 실제 국제가격결정 방법이다.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는 정답 선택지로는 맞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정답으로 고르는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세계시장 전체를 고려한 전략적 결정방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③의 '목표'라는 단어 때문에 목표가격법 같은 다른 가격개념과 혼동하면 오답이 된다. 이 문항은 가격수준을 정하는 기법이 아니라 국제시장에서 가격을 어느 기준으로 통합하거나 차별화할지를 묻는 분류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국제가격결정 문항에서는 먼저 분류 이름이 본국, 현지, 세계처럼 가격결정의 기준 범위를 나타내는지 본다. 범위를 나타내지 않고 일반적인 목표나 성과를 연상시키는 용어이면 대표 분류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암기 포인트

본국은 본사 기준, 현지는 국가별 적응, 세계는 글로벌 통합이다.

NoteBase

문 19. 조직설계에서 기능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 기능별 규모의 경제를 획득할 수 있다.

② 각 기능별 기술개발이 용이하다.

③ 내적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다.

④ 다품종 생산에 효과적이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기능조직의 장점과 한계를 사업부제의 적용 상황과 구별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핵심 개념

기능조직은 생산, 마케팅, 재무처럼 유사 기능별로 부서를 묶는 조직형태로서 전문화와 규모의 경제, 내부 효율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사업부제는 제품·시장·지역별로 성과 책임을 나누는 조직형태로서 다품종 제품이나 다양한 시장 대응에 더 적합하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능조직은 같은 기능을 한 부서에 집중하므로 인력과 설비를 공동 활용하기 쉽다. 따라서 각 기능별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다.

② O
같은 전문 기능 인력이 한 부서에 모이므로 경험 축적과 표준화가 쉬워 기술개발과 전문성 심화에 유리하다.

③ O
기능별 전문화와 반복 학습이 가능하므로 업무 중복을 줄이고 내부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다.

④ X
틀린 부분은 "다품종 생산에 효과적이다"이다. 기능조직은 표준화된 업무와 소품종 대량생산에 더 적합하며, 다품종 생산이나 제품별 시장 대응에는 사업부제가 상대적으로 효과적이다.

오답 포인트

기능조직의 장점만 외우고 적용 상황을 구분하지 않으면 ④를 고르지 못한다. 특히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보고 곧바로 "다품종 생산에도 유리하다"로 일반화하는 오류가 자주 나온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능별 전문화, 규모의 경제, 내부 효율성이 나오면 기능조직을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제품 종류가 많거나 시장 대응의 유연성, 제품별 책임경영이 나오면 사업부제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기능조직은 전문화·효율, 사업부제는 다품종·시장대응이다.

NoteBase

문 20. 표는 음료를 구매하고자 하는 갑(甲) 소비자의 음료 선택과 관련된 속성의 중요도와 각 속성별 브랜드 평가에 대한 내용이다. 중요도가 높을수록 해당속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고, 속성별 평가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브랜드의 속성에 대해 우수하게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갑 소비자가 대안평가 방법 중 사전편집식 방식(lexicographic rule)을 이용할 때, 갑 소비자가 선택할 하나의 브랜드는?

제품속성	중요도	속성별 평가			
		A 브랜드	B 브랜드	C 브랜드	D 브랜드
맛	0.6	4	4	2	3
향기	0.3	3	2	3	1
가격	0.1	1	2	3	5

① A 브랜드

② B 브랜드

③ C 브랜드

④ D 브랜드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전편집식 대안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속성부터 순차적으로 비교해 최종 브랜드를 고르는 기준을 묻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중요도 크기로 속성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2. 가장 중요한 속성인 맛 점수부터 비교해 최고 점수의 후보만 남긴다.
3. 동점이면 다음 속성인 향기로 비교하고, 또 동점일 때만 가격으로 넘어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맛 행에서 A와 B가 4점으로 공동 최고이다. 다음 우선속성인 향기 행에서 A가 3점, B가 2점이므로 A가 선택된다.
② X: B는 맛에서는 A와 동점이지만 향기 행에서 2점으로 A의 3점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B가 선택된다'이고, 올바르게는 '맛 동점 후 향기를 비교하면 A가 선택된다'이다.
③ X: C는 가장 중요한 속성인 맛 행에서 2점으로 A와 B의 4점보다 낮아 첫 단계에서 탈락한다. 틀린 표현은 'C가 선택된다'이고, 올바르게는 '사전편집식에서는 최우선 속성인 맛 점수가 낮은 C가 선택되지 않는다'이다.
④ X: D는 가격이 5점으로 가장 높지만 가격은 세 번째 비교 속성일 뿐이다. 가장 중요한 맛 행에서 D는 3점으로 A와 B보다 낮다. 틀린 표현은 'D가 선택된다'이고, 올바르게는 '사전편집식에서는 앞선 속성에서 밀리면 가격 우위만으로 선택되지 않는다'이다.

오답 포인트

중요도 수치를 가중치처럼 곱해 합산하는 보상적 평가와 사전편집식을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은 0.6, 0.3, 0.1을 곱해 더하는 문제가 아니라, 맛→향기→가격 순으로 한 속성씩 비교하는 문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전편집식이 보이면 가장 중요한 속성 하나로 먼저 후보를 걸러 낸다고 판단한다. 동점일 때만 다음 속성으로 넘어가며, 뒤의 속성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앞선 속성에서 밀리면 선택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사전편집식은 '최우선 속성 우선, 동점이면 다음 속성'의 순차 비교 방식이다.

NoteBase